

1. 지권의 변동

1. 맨틀 대류의 에너지원은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과 지구 중심부에서 맨틀로 공급되는 열이다.
2. 맨틀 대류설이 발표될 "당시" 맨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.
3.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는 [고지자기 분포]와 [해양지각 연령 분포와 퇴적물의 두께]이다. (물론 추가적으로 더 있기는 함)
4. 해령은 지도상에서 굵은 실선으로 표시된다.
5. 천발 : 0~70km / 중발 : 70 ~ 300km / 심발 : 300km ~
6. 가나다(대륙이동)라마(맨틀대류)바사하(해양저확장)~!
7. 깊이 ~100km까지를 암석권(판)이라고 한다.
8. 연약권은 100km ~ 400km의 저속도층이다. (부분용융 = 액체상태라고 하면 안됨)
9. 판의 밀도 : 유라시아 < 필리핀 < 태평양 (2019지1 9월 6번)
10.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얇다.
11. 로디니아 초대륙 -> 고생대 말 판게아 형성 -> 중생대에 분리 시작 -> 대서양 생기기 시작 -> 신생대에 히말라야 산맥 형성
12. 고지자기 줄무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이다 = 해령 양쪽의 확장속도가 같다.
13. 지구 자기장이 급변해도 고지자기는 변하지 않는다.
14. 플룸 구조론은 판 내부의 대규모 화산 활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하였다.
15. 온도가 높으면 지진파의 속도가 느리다.
16. 해양판 vs 해양판일 때 습곡산맥은 만들어지지 않는다.
17. 외핵과 맨틀의 경계는 최소 몇천km인데.. 만약 자료에서 수십~수백km인 지점과 온도가 높은 지형을 제시했다면 열점이 아니고 그냥 맨틀 대류 상승부라고 생각하자!!
18. SiO₂ 적다 = 고철질 = 감람암질 = 염기성 = 마그마온도높다 = 밀도크다
19. SiO₂ 많다 = 규장질 = 산성 = 마그마온도 낮다 = 밀도작다
20. 심성암이 밀도가 크다고 생각하면 안됨!! 밀도는 철같이 무거운 성분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고철질암이 무조건 밀도 큼!!